

환경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제(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자연몽(夢) 이야기)

1. 목적 및 배경

- 국립공원의 식물학자, 환경교육전문가 등 간접적 직업군을 체험하며, 국립공원 업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환경교육
- 프로그램명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자연몽(夢) 이야기
- 대 상 : 중, 고등학생 20명
- 운영기간 : '20. 5. ~ 11.
- 운영형태 : 1시간30분/회
- 장 소 : 덕유산국립공원 일원
- 주요내용 : 국립공원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 알아보기, 국립공원 역할의 중요성과 구천동계곡의 생태적 특성과 보존 의식 함양
- 소요예산 : 1백만원
- 참 가 비 : 무료(곤도라 비용 참여기관 부담)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모집공고 및 공문발송을 통한 교육기관 홍보
- 참가자 접수 방법 : 유선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페이스 북 홍보(4월~10월, 2회), 보도자료 제공(1회)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첨부 1.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2.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일정표>

구분	유형	시간	주요내용	장소
환경교육 전문가	①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이해 - 국립공원 녹색직업 만나기 - 환경교육전문가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어사길 1구간)
		1시간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전문가란? - 해설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 - 다양한 관점을 통해 알아보는 환경교육의 중요성 - 생태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자연감성 	
국립공원 동물학자	②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이해 - 국립공원 녹색직업 만나기 (국립공원 동물학자) - 국립공원동물학자가 하는 일 - 야생동물 흔적찾기 (발자국, 배설물, 새둥지 등) -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 토의 후 발표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어사길 2구간)
국립공원 식물학자 I	③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이해 - 국립공원 녹색직업 만나기 (국립공원식물학자-식물종복원센터) - 식물종복원센터에서 하는 일 - 덕유산국립공원의 멸종위기식물 및 특산종 알아보기(광릉요강꽃 외) - 한지형, 난지형, 아고산대형 온실 견학 - 식물학자 간접 직업체험(야장체험) (캘리퍼스, GPS를 이용한 식물조사) 	덕유산국립공원 (식물종복원센터)
국립공원 식물학자 II	④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녹색직업 만나기 (국립공원식물학자) - 아고산대 지형의 특징 이해 - 덕유산의 깃대종 구상나무와 야생화 이야기 - 자연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덕유산국립공원 (설천봉~향적봉)
녹색 건축가	⑤	2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이해 - 국립공원 녹색직업 만나기 (국립공원 녹색건축가) - 자연을 배려한 국립공원 속 녹색건축물 알아보기 (향적봉대피소, 안전쉼터부스) - 무장애탐방로, 나무데크 시설물로 알아보는 녹색건축가의 중요성 - 중봉에서 바라 본 덕유평전 경관 감상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중봉)

덕유산 자유학기제

-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자연몽(夢)이야기

활동장소	덕유산국립공원 일원
소요시간	90분
참가대상	중, 고등학생
참가인원	20명 / 해설사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알아본다.
-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구천동계곡의 생태적 특성과 보존 의식을 함양한다.
- 국립공원 식물학자, 환경교육전문가 등 간접적 직업군을 체험하며, 국립공원 업무를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준비물

- 구급약, 교구재, 루페, 진드기 기피제, 카메라, 휴대용 마이크 등

유의사항

- 동물, 식물 등 생물을 관찰 할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야외활동 시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유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인원 확인 및 건강상태 확인 - 덕유산국립공원 이야기 -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2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직업군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다양한 직업군 - 나와 적성이 맞는 국립공원 직업군 찾아보기 •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는야 환경교육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는 뭐지?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가 하는 일 - 야, 너두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가 될 수 있어! • 구천동계곡, 물길과 함께 걷는 구천동어사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유산국립공원의 깃대종 금강모치 -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 • 국립공원 환경교육전문가 직업체험 	6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공존”에 대한 느낌 나누기 • 설문 및 평가를 통한 마무리 인사 	10분

시나리오

덕유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의 직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자유학기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함께 걷는 길은 구천동어사길입니다. 예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원한 길입니다.

구천동어사길은 소설 '박문수 전'에서 어사 박문수가 구천동을 찾아 어려운 민심을 헤아렸다는 설화가 전해오는 길로, 계곡을 따라 걸으며 구천동 33경 중 16경에서 25경까지의 명소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탐방로를 걷기 전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실시)

몸에 근육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탐방프로그램을 시작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합니다. 탐방로 주변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낮에는 사람들의 힐링의 장소이지만, 밤이 되면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두 번째, 큰소리를 내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자연과 동물을 배려해주세요.

세 번째, 프로그램 시작 전 몸이 안 좋거나, 다치게 되면 여기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발열체크 및 안전교육 실시

덕유산국립공원 소개

지금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은 덕유산국립공원입니다. 혹시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자연 생태계와 자연, 문화 경관지를 선정하여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이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 22번째 태백산국립공원까지 산악형 18개, 해안형

3개, 사적공원 1개로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2개도(전북, 경남), 4개군(무주, 장수, 거창, 함양)에 걸쳐 있으며, 1975년 2월 1일 우리나라 10번째로 지정되었습니다.

덕유산의 원래 이름은 광여산(匡廬山)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화를 피해 이곳으로 피신해 왔었는데, 신기하게도 왜병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면 짙은 안개가 드리워 산 속에 사람들이 숨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면할 구 있었던 광여산의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큰 덕이 있는 산이라 하여 큰 덕(德), 넉넉할 유(裕)자를 써서 덕유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에 이름의 유래는 예로부터 은은한 향기가 그득히 쌓여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향적봉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직업군

국립공원 레인저는 환경 서비스, 환경 보호 및 복원 분야의 녹색 직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훼손된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자연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녹색 직업은 10년 전보다 매우 다양해졌고, 미래 유망 일자리에겐 언제나 녹색 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연구소와 언론은 20~30년 내에 수천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글로벌 기업들도 녹색 기업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녹색 직업은 환경 개선과 경제 성장을 고려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친구나 이웃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구, 더 나아가 미래 사람들에게까지 이로운 영향을 준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죠?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을 존중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녹색 직업을 추천할 수 있겠죠?

국립공원의 직업군은 동물학자, 식물학자, 안전관리전문가, 역사학자, 특별사법경찰, 해양학자, 공원계획가, 환경교육전문가, 녹색건축가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지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녹색직업군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의 여러 직업군 중 환경교육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간접체험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국립공원의 환경교육전문가

오늘은 구천동어사길을 걸으면서 주변 자연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게요.

먼저 우리가 걷는 이 곳에 대해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구천동어사길의 입구에요! 탐방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 행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천동 계곡을 따라 있는 덕유산 탐방로 안에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 데요. 인월 화상이 도를 닦은 곳으로 알려진 인월담은 아직도 인월암자가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사자의 형상을 닮은 사자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보이나요? 그 위로 쪽 올라가면 악기 비파 아나요? 비파를 닮아 비파담이 있는 데요. 특히 이 곳은 선녀들이 보름달마다 찾아와서 목욕을 하였다고도 전설로 전해지고 특히 아름다운 계류와 기암 괴석이 어울려져 있어 많은 풍류객이 이곳에 들러 세월을 낚는 음악과 노래로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는 선생님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야기 하도록 해요!

구천동 자연관찰로 입구에 환경부인증프로그램이라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을 본 친구들 있나요? 그 친구는 만날 건데요! 혹시, 아는 학생들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 금강모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강모치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금강모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버들피리' 혹은 '산피리'라고 부르며, 북한에서는 '금강뽕돌개'라고 부릅니다. 북한 일부 지역과 남한의 한강과 금강 수계에 극히 드물게 서식합니다. 현재는 강원도 인제, 평창, 정선 등의 청정수역에만 아주 적은 수가 살고 있으며 금강수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최상류인 이곳 무주구천동에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1급수를 나타내는 지표종이며, 한반도 고유종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모치는 깊은 산골짜기에 살며, 물이 깨끗하고 한 여름에도 수온이 20도를 넘지 않은 심산유곡에 삽니다. 구천동계곡은 금강모치가 살아가는 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환경입니다. 금강모치가 구천동계곡의 맑은 물에서 살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일지 모르지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종의 보존에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 떨어져 살게 된 금강모치의 생태적 가치는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강모치를 직접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강모치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 금강모치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연환경 해설은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과 탐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방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설의 범위가 자연자원뿐 아리나 해설 대상지의 역사, 문화자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자연환경 해설이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2년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공원 내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관찰 해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관리'자가 빠지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립공원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의 목적은 소비적, 유희적 탐방 문화로 야기되는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환경 해설을 '자연자원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않고 현장에서 탐방객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해설을 통해 탐방객의 자연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모하고 환경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기관의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자연환경 해설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휴양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환경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위해 이런 공간을 방문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방문하는 곳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방문지의 지형, 지질, 동물, 식물, 생태적인 군집, 역사와 인간의 발자취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여가와 학습을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와 학습에 대한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이란 여가와 학습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탐방객과 방문지의 다양한 자연을 연결하여주는 의사소통의 통로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환경교육전문가가 되려면 주변의 동, 식물,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해설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해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수집되면 참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해설 시 현장에서 사용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환경 해설 시나리오는 일정한 형식의 틀을 사전에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해설사가 해설해야 할 사항과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진 및 그림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고 참고자료를 함께 기재하여 향후 보완작업이 쉽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구천동어사길 트레킹 및 해설 프로그램 진행 시 탐방거리두기 준수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높이를 맞추다. 눈높이를 맞추다는 것은 해설 내용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와 해설할 때 상대방의 키 높이에 맞추어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을 생각한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을 포획하여 관찰 한 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연의 변화를 해설 소재로 적극 활용합니다. 자연 속에서는 항상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해진 해설을 하다가도 주변의 자연 속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변화를 해설 소재로 적극 활용하면 현장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네 번째, 오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연환경 해설은 대상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보기, 소리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만져보기 등 사람의 오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간단히, 내용은 쉽게 합니다. 한 장소에서 해설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거미줄에 대한 해설이 이러지는 경우라는 해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보게 하여 거미줄의 특성을 체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앞에서 누차 강조한 자연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닌 것 같아 조금 안심되는 듯 합니다.

해설을 하게되면,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말을 한번 짚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메라비언은 1971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말투나 표정, 눈빛과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93%의 영향력을 미치며 말의 내용은 7%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표정이나 말투가 상대방에서 친밀하거나, 호감을 유도하면 전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라비언은 시각, 청각, 내용 세가지 모두 완벽할 때 호감도와 좋은 이미지가 결정되며 3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탐방객은 좋은 해설이다, 라고 느끼기엔 다소 부족할 것입니다.

자연놀이를 통한 환경교육

해설프로그램은 설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놀이를 통해 간접적인 체험으로 메시지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덕유산의 깃대종 금강모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이 금강모치를 이용해서 자연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깃대종을 키워라”입니다. 덕유산의 깃대종인 금강모치와 구상나무를 이용한 놀이인데, 구천동어사길에서는 금강모치를 이용하여 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주변에 떨어진 열매나 나뭇가지를 하나씩 주워볼까요? 동그란 열매도 좋고, 조그맣게 떨어진 나뭇가지도 좋습니다. 여기 천에 올려놓고 금강모치 한 마리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목천에 그려진 금강모치가 보이시죠? 여기엔 금강모치와 주목, 구상나무 그림이 섞여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운 금강모치와 구상나무에 대해 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2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건데요, 각자 광목천 끝을 잡고 균형을 맞춰 자연물을 굴리면서 금강모치가 앞에서 깨어나 먹이 활동을 하고, 천적을 피해 번식기를 지나 하나의 커다란 성체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팀은 구상나무에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해 씨앗에서 한 그루의 구상나무로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놀이 진행)

어떤가요? 생각보다 천적을 피해, 지구의 온난화를 피해 한 그루의 나무, 한 마리의 금강모치가 어른이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혼자서만 잘하려고 하면 잘되지 않습니다. 한명, 한명이 모여 모두의 힘을 합쳐 놀이를 진행했을 때 온전한 구상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볼까요? 작은 나무, 야생화, 그리고 여러 생명들이 함께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자연 속 수 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깃대종이라해서 금강모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강모치를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그 주변의 수서생물의 생태계, 더 나아가서 주변의 자연생태계까지 보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금강모치를, 더 나아가 자연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자연놀이를 통해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춰보았습니다.



슬방울을 이용한 자연놀이 진행

마무리

여러분 오늘 덕유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의 직업군 중 환경교육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구천동어사길을 따라 걸으며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각자의 느낀 점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것이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은 시인의 시 “그 꽃”도 자연이 주는 시각의 변화에서 발견한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연은 날씨에 따라, 그날의 기분에 따라 본 모습을 달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어려운 일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작은 관심에서 부터 자연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더 자연을 돌아봐주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킨 이 자연은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직업군 중 국립공원과 녹색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계의 비경이 살아있는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 박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황사진>

